

지난 주 목요일, 같은 학과 후배 따라 점심 먹으러 찾아가는 곳.  
 동대입구역 1, 2번 출구 쪽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다.  
 여태 대학 다니면서, 아르바이트하면서 자주 지나쳤던 곳인데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다.



나는 곰탕콤비, 후배는 얼큰곰탕콤비를 주문했다.  
 얼큰곰탕콤비는 얼큰곰탕 + 왕만두2 + 수육 구성으로, 곰탕콤비보다 천원 비싼 14000원이다.





나주곰탕과 밥.

반찬으로는 겉절이, 깍두기, 오징어 젓갈이 나왔다.

잘 하는 국밥집에 가면 김치나 양파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해치울 수 있는데 여기가 딱 그랬다.

겉절이가 정말 맛있어서 2번이나 리필해 먹었다.

국밥은 고기도 꽤 많이 들어있고, 국물이 맑고 고소하니 맛있었다.



다음으로 나온 왕만두와 수육.

왕만두는 속이 짹 찬 고기만두였고, 맛은 냉동 고기 만두 찐 것과 비슷했다.

수육이 좀 특이했는데, 영락없는 스팸 냄새가 났다.

맛은 어떨까 해서 겨자소스에 찍어 먹어보니, 맛은 그냥 부드러운 수육이었다.

겉절이가 워낙에 맛있어서, 다음에 먹은 것들은 그냥 괜찮았다는 정도로만 기억이 난다.

다음 번에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먹어봐야겠다.

